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5권 제3호, 2022년 12월
J Korean Soc Sch Health Vol. 35 No. 3, 143-151, December 2022
p-ISSN 1225-9608 | e-ISSN 2288-9957
https://doi.org/10.15434/kssh.2022.35.3.143

학교 환경에 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박 현 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간호대학 교수

Influence of School Environment Awareness on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in Adolescents

Hyunju Park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cheon Camp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being aware of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environment of the school on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 data of "Health and lifestyle Survey (2019)"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after receiving approval though the website. A total of 5,31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 using SAS 9.4. **Results:** The mean score of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was 6.92±0.56 out of 10. From the univariate analysis,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physical school environment was, such as classrooms, restrooms, exercise facilities, catering facilities, health facilities, other school facilities and school uniform, the higher the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was (p for all $<$.001). In addition,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of the schoo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p<.001$).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school level, school grade, socio-economic status, and stress, positive perception of classrooms (B=0.04, $p<.001$), catering facilities (B=0.01, p=.021), health facilities (B=0.08, $p<.001$), and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of the school (B=0.18, $p<.001$)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appiness of the students. **Conclusion:** Positive percep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was found to increase happiness in adolescents.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make classrooms, catering facilities, and health facilities a pleasant space as well as to create a school atmosphere that values health.

Key Words: School environment; Happiness; Middle school; High school; Adolesc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의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하고 있다[1]. 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 행복이 중요한 가치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2021년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국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OECD 22개 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 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Corresponding author: Hyunju Park
College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Korea.
Tel: +82-33-250-8879, Fax: +82-33-242-8840, E-mail: hpark@kangwon.ac.kr

Received: Nov 20, 2022 / Revised: Dec 5, 2022 / Accepted: Dec 9,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적인 요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성별이나 학교급, 가정 경제수준, 학업성적, 평상시 스트레스 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하였다[6-9]. 그러나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인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10].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것을 고려할 때[11], 학교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학교의 환경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제시한 건강증진학교의 중요한 기본 요소에 포함되며[12], 물리적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지는 않았으나,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고[13],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도 찾을 수 있었다[14]. 따라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본 결과, 학교의 심리·사회적 만족도(학교생활 만족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1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11]. 따라서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이들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나 쾌적성으로 측정하였는데[13,15],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인식을 교실, 화장실, 체육시설, 급식시설, 보건실 등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감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단면 조사연구이며,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9년에 실시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의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명칭은 '건강 및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이다. 이 원시자료는 「2018년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분류한 후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로 집락화하여, 1차 학교 단위, 2차 학급단위, 3차 학생단위로 설정한 후,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하여 층화집락 비례확률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16]. 자료의 수집은 2019년 5월에서 7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서 원시자료 이용을 위한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이후 자료를 제공받았다. 원시자료에는 총 8,201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총 5,478명의 중·고등학생이 원시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31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급(초, 중, 고),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가족의 경제상태, 학교성적,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가족의 경제상태와 학교 성적은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높은 수준 또는 매우 높은 수준), 중(중간), 하(낮은 수준 또는 매우 낮은 수준)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0 (전혀 느끼지 않음)에서 10 (매우 많이 느낌)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1차 년도에 청소년들의 건강행태 및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개발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16].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계산된 신뢰도만을 제시하였다. 이 도구는 4점식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학교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현재 내가 다니는 학교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총 8개 영역으로, 교실, 화장실, 체육시설, 급식시설, 매점, 보건실, 기타 교내시설과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영역은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학교가 얼마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학교의 건강의식)을 조사하였다.

교실 영역의 경우 "교실의 조명은 밝다", "교실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이 잘된다" 등의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6점에서 24점의 범위를 갖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 쾌적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으로 조사되었다.

화장실 영역의 경우 "화장실은 깨끗하다", "화장실에 항상 휴지가 있다" 등의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4점에서 16점의 범위를 갖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화장실의 물리적 환경이 좋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8로 조사되었다.

체육시설 영역의 경우 총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다",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운동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측정하였다. 총 2점에서 8점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로 조사되었다.

급식시설 영역의 경우 총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급식시간은 식사를 여유롭게 할 만큼 넉넉하다", "균형있는 식단이 제공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급식시설이 좋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으로 조사되었다.

매점 영역의 경우 총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매점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한다", "학교 앞 상점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영역의 경우 매점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매점 영역의 분석 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모두 부정문항으로 질문하였으므로, 역코딩을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의 매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7로 조사되었다.

보건실의 경우도 총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와 "보건실에는 구급약품과 위생용품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로 이루어져 있다. 총 2점에서 8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건실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교내시설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복도에 먼지가 많고 깨끗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 영역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섞여있어, 부정문항의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여 총합을 구하였다. 따라서 5점에서 20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타 교내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54로 조사되었다.

교복의 경우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복과 학교 체육복은 몸에 잘 맞고 편안하다"와 "하복은 땀을 잘 흡수하고 바람이 잘 통한다" 등을 포함한다. 이 영역 역시 부정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였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답하게 하였고, 이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1로 조사되었다.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을 측정하는 영역(학교의 건강의식)은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2문항은 학교가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 중 우리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를 포함한다. 나머지 2개의 문항은 보호자와 내 자신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나의 보호자는 나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 나는 나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 학교 심리·사회적 환경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기술한 2문항 만을 분석에 포함하여, 총점은 2점에서 8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로 조사되었다.

3) 행복감

행복감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0 (전혀 행복하지 않음)에서 10 (매우 행복함)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행복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의 관련성(단변량 분석)은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온 외생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학교의 환경(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환경 인식, 행복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637명(49.7%), 여학생은 2,674명(50.3%)이었고, 중학생 2,423명(45.6%), 고등학생은 2,888명(54.4%)으로 나타났다(Table 1). 거주지역은 대도시 2,179명(41.0%), 중소도시 2,529명(47.6%), 읍면지역 603명(11.4%)으로 나타났고, 가정 경제수준은 상 1493명(28.1%), 중 3,384명(63.7%), 하 434명(8.2%)이었다. 학업성적은 상 1,519명(28.6%), 중 2,358명(44.4%), 하 1,434명(27.0%)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10점 만점 중 평균 5.64±2.16점이었다.

학교환경 인식을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실 18.56±3.16점, 화장실 10.75±2.68점, 체육시설 5.67±1.58점, 급식시설 30.17±5.56점, 매점 5.40±1.93점, 보건실 6.74±1.19점, 기타 교내시설 14.51±2.25점, 교복 11.03±2.66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5.75±1.33점으로 조사되었다.

행복감은 10점 만점 중 평균 6.92±2.18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및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 및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거주 지역은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성별, 학교급, 가정 경제수준, 학업성적은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7.28±2.16)이 여학생(6.58±2.14)에 비해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았고($p<.001$), 중학생(7.13±2.21)이 고등학생(6.75±2.14)보다 더 행복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 상 7.40±2.14, 중 6.86±2.11, 하 5.80±2.36으로 조사되어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학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5,31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2,637 (49.7)
	Female	2,674 (50.3)
School level	Middle school	2,423 (45.6)
	High school	2,888 (54.4)
Living area	Large city	2,179 (41.0)
	Medium city	2,529 (47.6)
	Small town	603 (11.4)
Economic status of family	High	1,493 (28.1)
	Middle	3,384 (63.7)
	Low	434 (8.2)
School grade	High	1,519 (28.6)
	Middle	2,358 (44.4)
	Low	1,434 (27.0)
Stress		5.64±2.16
Physical environment of school	Classroom	18.56±3.16
	Restroom	10.75±2.68
	Exercise facilities	5.67±1.58
	Catering facilities	30.17±5.56
	Stores†	5.40±1.93
	Health facility	6.74±1.19
	Other school facilities	14.51±2.25
	School uniform‡	11.03±2.66
Psychosocial environment of school		5.75±1.33
Happiness		6.92±2.18

†n=2,605, ‡n=4,646.

업 성적도 상 7.41±2.02, 중 6.93±2.11, 하 6.41±2.33으로 나타나 성적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스트레스는 행복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r=-.51, p<.001)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경우 매점에 관한 인식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이 행복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교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r=.26, p<.001), 화장실 환경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고(r=.17, p<.001),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r=.13, p<.001). 또한 급식시설 환경 인식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으며(r=.25, p<.001), 보건실 환경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r=.17, p<.001). 기타 교내시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고(r=.17, p<.001), 교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r=.20, p<.001).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r=.27, p<.001).

3.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단변량 분석에서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급, 가정 경제수준, 학업 성적, 스트레스)을 보정한 상태에서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학교 물리적 환경 인식 중 매점에 관한 영역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으며, 교복 영역 역시 다변량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이 영역에 '해당없음'으로 응답하여 다수의 결측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유의하였다(F=178.06, p<.001). 모델의 설명력은 32%로 조사되었고, VIF가 모두 10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되어(1.06~1.99) 모두 10보다 작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 중 교실환경, 급식시설, 보건실 영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실환경 인식 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04점씩 증가하였고(B=0.04, p<.001), 급식시설 인식 점수는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01점씩 증가하였다(B=0.01, p=.021). 또한 보건실 인식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08점씩 증가하였고(B=0.08, p<.001).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18점씩 증가하였다(B=0.18, p<.001).

일반적 특성은 모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행복감이 0.25점 낮았으며(B=-0.25, p<.001),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행복감 점수가 0.10점 높았고(B=0.10, p=.042), 학업성적은 중에 비해 상에서 행복감이 0.16점 높았고(B=0.16, p=.007), 하에서는 0.29점 낮았다(B=-0.29, p<.001). 가정경제수준은 중에 비해 상에서 행복감이 0.25점 높았고(B=0.25, p<.001), 하에서 0.61점 낮았다(B=-0.61, p<.001). 스트레스는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44점씩 감소하였다(B=-0.44, p<.001).

표준화된 베타 값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스트레스가 -0.43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이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ample Characteristics and Happiness in Adolescents (*N*=5,311)

Variables	Classification	M±SD	t or F or r	*p*
Gender	Male	7.28±2.16	11.88	<.001
	Female	6.58±2.14		
School level	Middle school	7.13±2.21	6.40	<.001
	High school	6.75±2.14		
Living area	Large city	6.88±2.17	1.47	.231
	Medium city	6.93±2.19		
	Small town	7.05±2.11		
Economic status of family	High	7.40±2.14	98.95	<.001
	Middle	6.86±2.11		
	Low	5.80±2.36		
School grade	High	7.41±2.02	79.93	<.001
	Middle	6.93±2.11		
	Low	6.41±2.33		
Stress			-.51	<.001
Physical environment of school	Classroom		.26	<.001
	Restroom		.17	<.001
	Exercise facilities		.13	<.001
	Catering facilities		.25	<.001
	Stores †		.03	.159
	Health facility		.17	<.001
	Other school facilities		.17	<.001
	School uniform ‡		.20	<.001
Psychosocial environment of school			.27	<.001

Table 3. Influence of School Environment on Happiness among Adolescent after Adjusting Covariates (*N*=5,311)

Variables		B	S.E	β	t	*p*
Gender	Male	1				
	Female	-0.25	0.05	-.06	-5.00	<.001
School level	Middle	1				
	High	0.10	0.05	.02	2.03	.042
School grade	Middle	1				
	High	0.16	0.06	.03	2.71	.007
	Low	-0.29	0.06	-.06	-4.82	<.001
Economic status of family	Middle	1				
	High	0.25	0.06	.05	4.36	<.001
	Low	-0.61	0.09	-.08	-6.59	<.001
Stress		-0.44	0.01	-.43	-36.32	<.001
Physical environment of school	Classroom	0.04	0.01	.06	3.73	<.001
	Restroom	0.00	0.01	.00	0.43	.669
	Exercise facilities	-0.01	0.02	-.01	-0.69	.489
	Catering facilities	0.01	0.01	.04	2.32	.021
	Health facility	0.08	0.05	.05	3.56	<.001
	Other school facilities	-0.01	0.01	-.01	-0.79	.432
Psychosocial environment of school		0.18	0.02	.11	7.37	<.001
		R^2=.32, Adj. R^2=.32, F=1,78.06, p<.001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 인식으로 나타났는데, 표준화된 베타 값은 0.11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서 이들의 학교 환경(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 점수는 10점 만점 중 6.92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3.78점으로 조사되었고[7],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56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 중 아동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중·고등학생 512명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24점 만점 중 16.22점으로 나타났으며[11],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6.76점에 해당된다. 또한, 2017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II의 2차년도(2017년) 고등학생 45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10점 만점으로 행복감을 측정하였는데 평균 6.93점으로 나타났다[8].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2014년도에 조사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감 수준보다는 낮지만[7], 2012년과 2017년도에 조사된 결과와는[8,11] 비슷한 수준임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변량 분석결과 학교의 물리적 환경 중 교실환경, 급식환경과 보건실 환경이 학생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결과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몇 개 찾을 수 있었다[13,15,17-20].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교내 시설의 컬러 시공을 통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코티졸 수준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17]. 코티졸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분비가 증가하는 호르몬이므로 코티졸의 감소는 스트레스의 감소를 의미하며, 스트레스의 감소는 행복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행복감은 아니었지만, 학교의 소음이 학생들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13].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15].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좋은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18].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에서 행복감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19] 및 본 연구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행복감이 높았다는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이 학생들의 높은 행복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울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20], 교실의 물리적 환경과 학생들의 행복감 사이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급식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학생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급식 환경에 대한 인식은 급식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찾기가 어려웠다. 다만, 대한급식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 91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급식에 만족할수록 행복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와[21]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건실 환경의 경우 보건실 이용의 접근성과 약품 구비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보건실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존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으나, 학교에서 아플 때 보건실을 통해 적절한 약품을 제공받고,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실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직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만족이나 인식이 학생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된 학교의 심리사회적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가[11] 가장 본 연구와 가까운 연구결과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제외하면 학교 환경 중 가장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이었다는 점은 학교가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의 환경과 급식 환경 및 보건실 환경이 물리적 환경 중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었다. 따라서 교실, 급식실, 보건실의 물리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

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가 건강을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의 정책에 있어서 건강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스트레스가 모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행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분석한 연구[7] 및 2016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연구(III)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8].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및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행복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 역시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6-8]. 특히, 학업성적의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므로 본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되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8].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모두 일치하였다[6-8].

본 연구에서 학교급의 경우 단변량 분석결과와 다변량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7,8,10]. 그러나 다른 여러 변수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0.1점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하였다.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행복감에서 0.1점의 차이는 상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급의 차이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이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설명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추후 보다 자세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므로 원인 결과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의 다변량 모델은 청소년들의 행복감의 약 32%정도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이미 수집된 자료의 2차 분석 자료이므로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 등이 이들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의 경우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나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반면에 본 연구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보다 구체화하여 교실이나 급식실 등의 여러 시설 중 어떤 영역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에 보다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을 분석에 모두 포함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학교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물리적,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10점 만점 중 평균 6.9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뒤에도 교실, 급식 및 보건실에 대한 환경인식과 학교의 심리·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교실, 급식, 보건실의 환경개선과 유지, 학교가 건강을 중시하는 풍토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이므로 학교 환경인식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 환경을 물리적, 사회·심리적 영역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므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Republic of Korea Judiciary. Constitution [Internet]. Seoul: Author; 1987 [cited 2022 November 15].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2. Bang Jeong-Hwan Foundation. Happiness index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et]. Seoul: Author; 2021 [cited

2022 November 15]. Available from: https://kossda.snu.ac.kr/bitstream/20.500.12236/25322/4/kor_report_20210010.pdf
3. Daly MC, Wilson DJ. Happiness, unhappiness, and suicide: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2009;7(2-3):539-549.
4. Cho SM, Lee EJ, Baik HU. A study on the effects of adolescents' school happiness on the suicidal ideation. Crisisonomy. 2022; 18(6):135-150.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2.18.6.135
5. Field T, Diego M, Sanders CE.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2001 Summer;36(142):241-248.
6. Wi OY, Lee JH.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focused on perceived stress, activities and practic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7):585-596. https://doi.org/10.5762/KAIS.2016.17.7.585
7. Kim HN, Kim JS, Roh SH.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 analysis of 2014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1):7656-7666.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7656
8. Kim, HS, Kim JT, Choi CW, Moon SH, Kim TO. Analysis of difference in self-esteem and happiness according to school age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9;26 (6):243-274. https://doi.org/10.21509/KJYS.2019.06.26.6.243
9. Ju JS, Lee SW. High school seniors' happiness and predictors: focusing on personal, school, and family variab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1;28(1):49-77. https://doi.org/10.21509/KJYS.2021.01.28.1.49
10. Huebner ES, Valois RF, Paxton RJ, Dranne JW.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05;6(1):15-24. https://doi.org/10.1007/s10902-004-1170-x
11. Suh JW, Jung YT. Comparison of influences of variables on subjective happiness in the youth: personal capability,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8):265-292.
12. Rowe F, Stewart D, Patterson C. Promoting school connectedness through whole school approaches. Health Education. 2007; 107(6):524-542. https://doi.org/10.1108/09654280710827920
13. Lee JH. Relationships between school's physical environment and student's mental health. The Environmental Education. 1999:12(2):110-119.
14. Chang YM. A study on factors related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and physical ·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0;17 (2):35-56.
15. Moon HN, Chai CG, Song NK. Analysis of the effect of perceived neighborhood physical environment on mental health. Seoul Studies. 2018;19(2):87-103. https://doi.org/10.23129/seouls.19.2.201806.87
16. Lim HJ, Baek HJ, Kim DS. A study on policy plans for youth health right I. Research Report.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9 December. Report No.: 19-R18.
17. Kim SH, Kim YH.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color consulting services to improve the school environment, Seoul report results.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017;24(2):18-24.
18. Bishop ME. A case study on facility design: the impact of new high school facilities in Virginia on student achievement and staff attitudes and behaviors [Dissertation]. Washington, DC: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09. p. 1-197.
19. Hong AS, Cho GP.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school happiness, and positive illusio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012;21(4):81-95.
20. Lim J, Jun Y. Happiness that youth feel in school lif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using photovoice. Forum For Youth Culture. 2017;52:133-162. https://doi.org/10.17854/ffyc.2017.10.52.133
21. Lee EK. Satisfaction with school meals influences happiness of students. Korean School Lunch News Paper. 2016 July 14;Sect.